

바다를 만나다! 겨울이





무녀도 쥐똥섬 일출
사진제공_레이첼 김

두근대는 설렘의 시작, 2025

한 해의 끝자락에 머문 바람이
귓가에 스치며 소곤댁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작은 속삭임에 마음속 별빛이 출렁댁니다

두근, 두근
이 설렘은
싹을 틔워,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겠지요

두근, 두근
울려 퍼지는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한걸음, 한걸음 용기를 내어
찬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2025년 01월호

Contents

05	기획	2024년 군산시 10대 성과
06	군산은 지금	현장을 가다
08	군산의 섬(島)	섬의 도시, 군산
10	군산의 인(人)	前 군산화교학교 교장, 여건방 군산명장, 라복임플로체
14	군산의 미(味)	군산의 짬뽕 겨울을 먹다, 겨울철 식재료
16	군산시 캐릭터	밝음이를 소개합니다
18	반가워, 2025	두근두근! 2025 트렌드 2025 군산 트렌드
20	생활정보 특특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솟품 등 소개
21	시민리포터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 리포터
22	도서관 소식	책 속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23	이달의 건강소식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24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5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26	의정	의회 주요 소식
28	시정 알림	시정소식 및 알림
30	문화 산책	
31	문화·공연 알림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 01. 제333호 발행일 2024. 12. 24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 최동위, 미디어홍보계장 김현정, 주무관 김미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포용과 연대로 우리들의 군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살아남는 종(種)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철저하게 혁신하는지에 따라
도태냐, 생존이냐가 결정됩니다.

서로가 포용과 연대로 끌어안으며
변화와 성장을 함께 모색한다면
불확실성이 번영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임준 군산시장, 2025년 시정연설 중에서 -





2024년 군산시 10대 성과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
인프라 구축 완료
**군산 특송화물통관장
개장**
*600만건 이상 처리 가능한
X레이 검색기 3세트

1



산단 청년문화 형성과 근로자,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개시**

2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까지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

3



17개사, 1조1천억원의
투자유치 견인
**이차전지, 수산식품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박차**

4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군산시민문화회관
개관**

5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군산시 최우수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6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기반
구축**

7



12개 입주기업과 1,7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8



7.10 시간당 131.7mm
기록적 폭우 대응
**극한호우에 빛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9



수제맥주&블루스 축제,
시간여행축제,
짬뽕페스티벌 개최
**사계절 골렘
축제도시**

10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선봉장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가다



전북 군산시가 글로벌 수산업 허브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종합 클러스터 성격의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수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가공 및 유통 구조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군산의 수산물이 타지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어민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0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12개 입주기업과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은 ㈜풀무원을 비롯한 김 관련 업체 6개소, 냉동냉장 업체 1개소, 지역 내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등 고차가공 식품을 취급하는 수산물가공업체 5개소 등이다. 해당 기업 들은 2026년까지 1,73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 4만평 부지에 달하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중 1만평의 공공부지에는 380억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으로 R&D식품연구·스마트팩토리·아파트형 가공공장시설·수출협력지원센터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며 240억 규모의 해수 공급시설과 내부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부지 3만 평에는 지역 수산인의 염원인 마른 김 가공 공장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바다와 유사한 김 생육 환경을 조성한 큰 수조 안에서 김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공까지 진행하는 융복합 육상김 스마트팜,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입주 시킨다는 게 이번 사업 전략이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최초 국가산업단지 내
지자체 위임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이
새만금 사업으로 위축된 수산업의 부흥을 위한 투자협약 및
입주기업 유치로 새로운 수산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수산 분야 블루푸드 테크라는
새로운 향로를 향해 나아갈 선구자가 될 것이다.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현장

군산 *겨울* 사색코스 

군산(群山), ‘섬이 무리지어 있는 곳’

예부터 여러 개의 산이 무리를 지은 것 같다하여 군산이라 불렀습니다. 군산의 섬 군락인 고군산군도 중 하나인 신시도의 대각산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불끈불끈 솟아있는 기암괴석의 산봉오리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 이 곳의 명칭 유래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군산에는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라 통칭하는 12개의 유인도와 4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 무리가 있습니다. 유인도는 신선이 노니는 섬이라는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 · 무녀도 · 장자도 · 야미도 · 관리도 · 방축도 · 말도 · 명도 · 대장도 · 비안도 · 두리도가 있고, 무인도는 횡경도 · 소횡경도 · 보농도 · 십이동파도 등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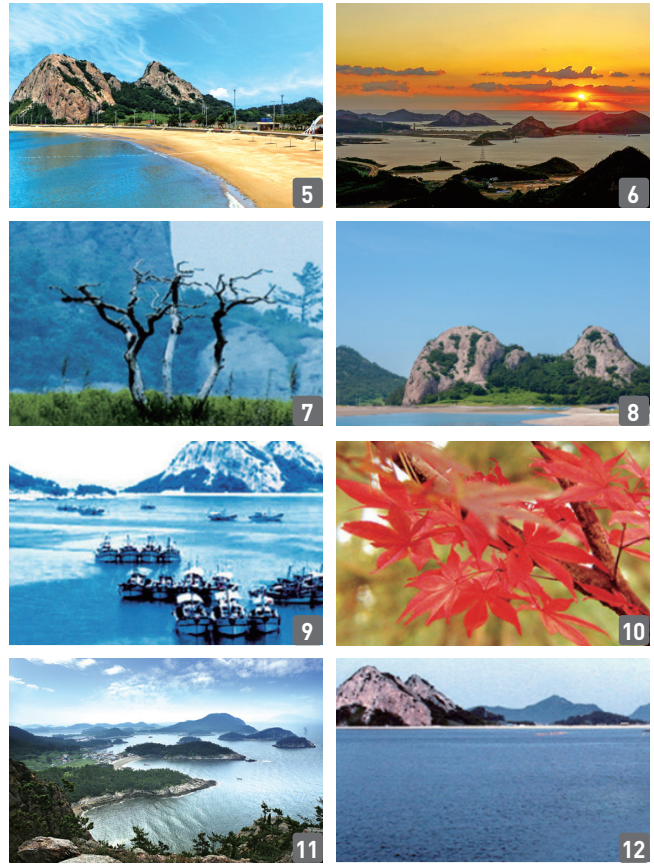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중 한 곳으로 알려지고 '한국 관광 100선'으로도 뽑힌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인증되었습니다.

말도 습곡구조 · 명도 얼룩말바위 · 광대도 책바위 · 방축도 독립문바위 · 대장봉과 할매바위 · 선유도 망주봉 · 무녀도 쥐똥섬 · 신시도 · 야미도 ·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10곳의 지질명소가 있지요.

고군산군도 하면 선유 8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십 리 길이에 투명하고 유리알처럼 고운 모래사장이 깔린 선유도 명사십리(明沙十里), 석양이 지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선유낙조(仙遊落照), 선유도의 기러기 형상의 모래톱 풍경의 평사낙안(平沙落雁), 선유도 망주봉에서 비가 쏟아지는 듯한 망주폭포(望主瀑布), 장자도 앞바다에서 밤에 조업하는 어선들의 불빛을 뜻하는 장자어화(壯子漁火), 신시도의 고운 단풍이 달빛 그림자와 함께 바다에 비친다는 월영단풍(月影丹楓), 선유도와 무녀도 사이 3개의 무인도가 마치 3척의 만선 배처럼 보이는 삼도귀범(三島歸帆), 방축도, 명도, 말도 3개 섬의 12개 봉우리가 마치 여러 무사들이 서 있는 것 같다는 무산십이봉(舞山十二峯) 등이 빼어난 경관을 뽐내고 있지요.



1 말도 습곡구조 2 신시도 주상절리 3 4 무녀도 해식 및 절리
5 명사십리 6 선유낙조 7 평사낙안 8 망주폭포 9 장자어화
10 월영단풍 11 삼도귀범 12 무산십이봉



고군산군도 중 하나인 말도 · 명도 · 방축도는 'K-관광섬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어 2026년에는 한국의 명품 관광섬으로 변모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요. 2025년에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특별호(1월호 · 4월호 · 7월호 · 10월호)에는 숨겨진 보물인 군산 섬들의 진가를 하나 하나 밝혀낼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섬이 품어온 이야기, 자연지형과 명소, 미래의 모습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세요.

前 군산화교학교 교장, 여건방



군산에서 짬뽕 얘기를 하면 화교들을 빼놓을 수 없지요. 개항기 군산으로 이주한 화교들이 차린 중국집에서 짬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산둥성 출신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청도항에서 배를 타고 이국땅으로 건너왔으며 대를 이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특집호에서는 군산 화교와 짬뽕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군산의 인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은 여건방 전 군산 화교소학교 교장 및 전 군산화교역사관 관장님입니다. 군산에서 태어난 화교 2세로 중국요릿집 용문각을 운영하기도 한 여건방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군산화교역사관 전시

일제가 조선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

여선생님의 아버지가 군산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생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업을 가업으로 삼았는데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일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천·부산·군산 등 개항 도시로 이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은 ‘따오’세 자루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여선생님의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군산에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칼을 ‘따오’라고 하는데요, 가위는 ‘지엔따오’라고 해요. 칼과 가위를 통칭해서 따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발하는 가위, 옷이나 구두를 만드는 가위, 음식 만드는 칼만 있으면 군산에서 호사를 누렸던 일본인들의 사치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화교학교는 군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교

군산에 화교학교는 1941년 개교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같이 8세에서 13세의 아이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개교 초기에는 50명 정도 되었던 학생 수가 시간이 지나자 2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인천, 서울에 이어 군산에 세 번째로 화교학교가 생겼고, 당시 한강 이남의 유일한 화교학교여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10년 넘게 휴교 중이지만요,

군산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화교들이 산동성 출신인 것은 당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육로나 항로밖에 없어서 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10시간이 훨씬 넘게 범선이나 돛단배를 타고 이주했다고 해요. 이후 6·25 전쟁으로 군산으로 피난 온 화교가 늘어나면서 산동성 외의 분들도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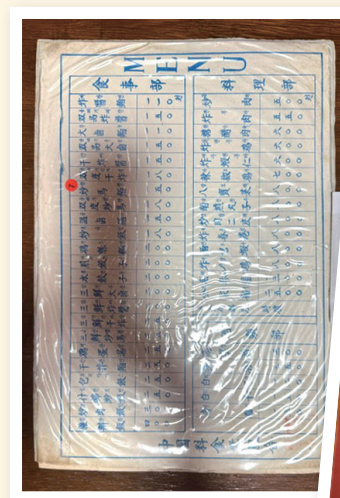


군산화교 소학교

“짬뽕은 군산이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화교의 직업은 상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사에 전념하는 화교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군산은 벼나 보리 등 논농사는 성행했어도 밭농사는 이에 비해 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주한 화교들이 밭농사에 다수 종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밭농사를 하시다가 1961년 「외국인토지법」으로 인해 중국요릿집을 개업 했대네요.

용문각. 당시 변화가였던 영화동에 개업한 중국요릿집의 상호입니다. 이를 여 선생님이 이어받았다고 하지요. 초기에 짬뽕이라는 메뉴는 당연히 없었고요. 여선생님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메뉴판 중 1973년도의 메뉴에 초마면이라는 한자 옆에 짬뽕이라고 적힌 글씨가 등장합니다. “나가사키에서 짬뽕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짬뽕이 나온 1970년대는 일본이라면 치를 떠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상기되는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1973년 용문각 메뉴판



용문각 명패

“주방장이 초마면에 고추를 넣으면 장사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짬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문각을 운영하던 중 주방장이 초마면에 고추를 넣으면 잘 팔릴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아닌 고추를 잘게 잘라 실고추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관이나 용이성,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고춧가루를 넣었다고 해요. 처음에 고춧가루를 넣은 초마면을 본 손님 들은 “웬 피어!”라며 질겁했다고 합니다. 맛은 있다면서도 무엇이 섞였는지도 모르는 빨간 국물을 짹짹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얼큰한 국물을 잊을 수 없었던지 소주 한 잔씩 기울이던 손님들이 ‘그 뒤죽박죽 짬뽕 된 빨간 국물’ 좀 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화된 빨간 짬뽕이 당시에는 꽤 낯설었나 봅니다.



초마면

집마다 장맛이 다르듯, 짬뽕 맛도 달라요

짬뽕 국물의 육수에도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지금은 삼겹살이 금겹살이지만 과거에는 가장 저렴했던 부위였듯이, 돼지 뼈도 무료로 주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으로 돼지 뼈를 사용하고 닭발, 해물 등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육수의 성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시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팔리지 않는 졸복이나 주꾸미가 짬뽕에 통째로 들어가기도 했데요. 지금은 비싸서 일반 중국집에서는 잘 볼 수 없죠. 짬뽕이 대중적인 음식인 만큼, 이렇게 계절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육수와 고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점마다 짬뽕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짜장은 전국적으로 맛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1960년대 말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벌인 ‘장독대 없애기 운동’으로 집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제조하는 것을 보기 힘들 듯이 수제 춘장도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법이 까다로워서, 대부분 시판되는 춘장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짜장면의 맛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합니다.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이겨낸 우리나라의 화교

여선생님은 폐업한 용문각에 2017년부터 군산화교역사관을 운영하며 군산의 역사와 짬뽕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폐관하였지만, 한 때는 하루에 500명이 넘게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삼일절에 방문객이 많이 왔다고 해요. 지금도 문을 닫지 않고, 관광객들이 문을 두드리면 군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여선생님을 비롯한 화교들은 역사의 변혁기에 우리나라의 침탈, 해방, 전쟁, 번영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선생님은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한국인 며느리와 사위를 통해 얻은 손주까지 4대를 이어 한국에서 살아 와서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반중 감정이 화교에까지 번질 때가 가장 서운해요. 중국에 갈 때 뉴스에 대한민국이 나오면 친척들도 너희 나라, 너희 대통령 하는데 한국에서도 외면하면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영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개인의 일생과 맞물린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편견으로 선을 그어 누군가를 폄하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태도인가 하는 깨달음도 듭니다. 우리네 인생은 언젠가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봄 처럼 꽃 처럼 라복임 플로체 라복임 명장

1991, 아련한 장미 향기 가득했던 작은 꽃집에서 시작해
어느덧 33년차 플로리스트가 된 라복임 명장
'꽃 속에서 빛을 찾는' 군산의 사람,
라복임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언제부터 화훼장식 일을 시작하셨나요?

A 1991년 11월, 군산 우체통 거리에서 작은 5평짜리 꽃집 장미꽃집을 시작으로 화훼장식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는 15평 건물을 매입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Q 어떤 교육과 활동을 통해 역량을 쌓아오셨나요?

A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화훼장식 강의를 시작으로 독일 플로리스트 코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계 강사과정을 통해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2017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Q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A 매일 아침 느껴지는 맑은 화원의 향기와 꽃 시장에서 주문한 꽃 상자를 열 때 전해지는 꽃의 생동감은 제 삶에서 꽃은 에너지를 주는 원초적인 존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Q 명장으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드라마나 SNS에서 보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꽃 한송이가 피어나듯, 단순히 멋있어 보이거나 있어 보이고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Q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꽃과 인문학의 결합을 위해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고 감성으로 느낄 줄 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인문학적 관점을 담은 교재를 집필하고자 합니다. 화훼장식을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작품에 깊이와 가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군산시
명장을
소개합니다!

군산시 명장이란 우리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군산시 명장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 매년 선정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정된 군산시 명장을 독자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454-4353

군산의 짬뽕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이 연상될 정도로 군산은 짬뽕의 도시다. 대를 이은 중국집이 즐비하고,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전국에서食客들이 몰려든다. 군산의 중국집은 백종원의 짜장면 랩소디 등을 비롯해 TV 예능, 맛집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한편, 타짜, 남자가 사랑할 때, 사랑의 불시착 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는다.

군산과 함께 짬뽕의 메카로 손꼽히는 지역은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연희동 등이다. 인천과 연희동의 짬뽕은 중국의 푸젠성 탕육사면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한국에 전해졌지만, 군산의 짬뽕은 개항기 화교들에 의해 산동성의 초마면이 들어와 우동으로 팔리다 고춧가루를 만나 자리 잡은 음식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군산의 짬뽕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료 각각의 맛이 살아있고 국물이 맑고 칼칼한 이유다. 그래서 아직도 군산의 중국집에는 개항기의 모던한 낭만이 아직도 그대로 담겨있다.

*국방일보 정상원 셰프의 바람의 짬뽕 발체

당시 화교들은 노천에서 손으로 면을 빼고 장작불을 때서 짬뽕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흰 국물의 초마면에 1960년~1970년대 기호에 맞게 고춧가루를 넣었고, 1970년 이후 짬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군산에서의 화교 역사도 흥미롭다. 군산항 개항 이전부터 많이 들어온 화교들은 대부분 농사나 장사를 하며 살았다. 하지만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농지 소유가 금지되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하는 화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천여 명에 달했던 화교들이 이전하면서 운영하던 중국집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게 되면서 짬뽕의 맛이 점점 현지화가 되어 오늘의 짬뽕이 되었다.

짬뽕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게에 따라 맛이 다르다. 본래 짬뽕은 돼지고기를 볶아 기름을 낸 후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넣은 다음 돼지 뼈를 우린 육수를 부어 팔팔 끓인다. 여기에 고명이나 육수 등으로 변주를 주어 다채로운 방식으로 맛을 연주할 수 있다. 많은食客이 짬뽕 순례에 집중하는 이유다.

군산은 해산물과 야채 등 식재료가 풍성하여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군산 짬뽕의 맛은 다른 지역의 짬뽕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어떤 육수를 쓰느냐부터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 색다른 맛을 내는 짬뽕은 군산이라는 도시를 만나 맛은 물론이고 탄생 배경과 그 시대의 분위기와 함께 시너지를 내어 매력을 진하게 풍긴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짬뽕하다'라고도 한다. 군산의 짬뽕은 역사와 문화, 지역의 식재료가 절묘하게 블렌딩 되어 맛과 멋을 만들어냈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것이다.

군산 짬뽕을 음미하다 보니 군산 문학가 채만식의 「탁류」 중 한 구절이 떠오른다. "에두르고 회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은 무엇인가. 탁류 짬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한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삶의 물살을 따라 흘러온 여기 군산에서, 민족과 나라, 시대의 격동을 넘나든 하나의 음식이, 하나의 문화가, 또 하나의 세계가 풀린다.

짬뽕 한 그릇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



못생겨도 맛있는 못난이 생선, 물메기

바다의 못난이로 불리지만 맛과 영양가는 으뜸인 물메기! 입맛 없을 때 드시면 밥 한 그릇도 푹딱! 드셔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물메기의 표준어는 ‘꼼치’이며,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흔히 물메기로 불립니다. 썸뱅이목 꼼치과에 속하며, ‘물텀벙’이라는 별명은 물에 빠질 때 나는 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북서태평양 온대 해역에 서식하며, 11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잡힙니다.

생김새 때문에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물메기는 생선 취급을 받지 못하고 못생긴 생선으로 불리며 홀대받았지만, 일부 해장국집에서 대구 대용으로 사용되다가 대구 못지않은 맛을 낸다는 입소문이 퍼져 현재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살이 부드럽고 국물이 시원하며 맛이 뛰어나, 특히 군산에서 잡힌 물메기의 품질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조선시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살이 연하고 뼈가 무르며 술병을 고친다”고 기록될 만큼 효과와 맛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물메기는 삼면 해안에서 두루 잡히며, 지역마다 조리법이 다릅니다. 경상도에서는 무를 넣어 맑은 국물을 끓이는 반면, 군산에서는 양념을 더해 얼큰하게 끓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추천되는 물메기탕은 국물과 함께 먹으면 물메기의 부드러운 살이 어우러져 별미 중의 별미로 손꼽힙니다.

재료준비(4인분)

생물 물메기 1.5kg(1마리), 무 400g, 양파 1/2개, 대파 1대, 청양고추 3개, 다진 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국간장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멸치 육수 2.5L

만드는 방법

① 재료 손질

물메기를 깨끗이 씻고 적당한 크기로 썬다.

② 재료 준비

무는 0.5cm로 두께로 납작하게 썰고, 양파도 무와 같은 두께로 채썰어 준비한다. 대파와 고추는 어슷썰기 한다.

③ 육수 끓이기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준비한 후, 무를 넣어 끓인다.

④ 물메기 넣기

육수가 끓으면 물메기와 국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약 5분간 끓인다.

⑤ 조리하기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대파, 고추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밝음을 소개합니다



2025년 새로운 트렌드로 뜨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해.력. 무.척이나 불안하고 뽀족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유해'한 것들로 가득찬 것 같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위안을 주는 그 무언가, 상처줄 일 없는 '무해'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점점 힘

들어지는 사회에서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복슬복슬, 보들보들, 말랑말랑.

하찮고 무해한 것들이 주는 촉감이

"다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듯 합니다.

가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키링을

보면 사소한 웃음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매력이겠지요. 아기자기한 애착 키링, 서툴게 그린 이모티콘이 사랑받는 이유는 자극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회에서 나를 지키려는 보호본능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군산시 캐릭터, 밝음도 무해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밝음이가 키링, 스티커, 이미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에 부

응하여 시청 내에서 밝음 캐릭터 그리기 경연대

회를 작은 규모로 개최하기도 했지요.

밝음이는 군산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선정했던 공식 캐릭터입니다. 시의 상징인 포동포동한 동백꽃 얼굴과 갈매기 머리핀에 물결모양의 스카프를 매고 있는



노오란 밝음. 오동통한 몸매를 보고 있노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올해

더 많이 변화할 밝음.

오늘 하루 귀엽뽀작한 밝음이와

함께, 가슴 몽글몽글하고 포슬거리는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우리 관심에서 멀어졌던

밝음이는 여러분에게 다가가

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 홍보물에 다양한 표정의 얼굴로

등장! 귀여움으로 무장

하고 있는 밝음!

청원들 사이에서도 소소한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이슈몰이에 성공! 슈퍼스타

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

도 기분을 밝아지게 하는 우리 밝음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밝음키링



군산시청 직원들 대상
밝음 그리기 대회 출품작

2024년 12월 25일



제목: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난	밖	음	이	인	데	사	람	들	이	덤	돌	이		
래	.	나	를	잘	고	르	나	봐	.	나	르	사		
갈	매	기	를	좋	아	하	고	용	백	꽃	을	사		
랑	하	기	관	산	시	의	마	기	코	트	인	데!		
조	금	서	안	행	지	만	나	밖	미	이		지		
지	않	아	.	앞	이	권	사	람	들	이		던		
일	아	보	나	를	새	해	영	기		인	기	라	그	램
을		기	간	행	복	파?	어	들	의	들	기			새

두근두근! 2025 트렌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트렌드와 신조어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한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활용해보세요

질문 2025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신조어를 기반으로 알려줘

챗GPT 이 분류는 트렌드노트, 트렌드모니터, 트렌드코리아 2025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을 조합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미래 트렌드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1 개인화와 맞춤형 경험 강조

옴니보어(Omnivore) 고정된 소비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
페이스테크(Face Tech)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화 경험을 강화

2 소소한 행복과 일상 중시

아보하(Aboha)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평범함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라이프스타일
원포인트업(One-Point-Up) 작은 목표를 꾸준히 성취하며 일상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

3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기후 감수성(Climate Sensibility)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행동 강조
무해력(Power of Harmlessness) 자극적이지 않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부상

4 커스터마이징과 개성 표현

토픽경제(Topping Economy)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인기

5 한국 문화와 글로벌 융합

그라데이션 K(Gradation K) 한국 문화(K-팝, K-드라마 등)가 글로벌화되며 세계와 융합하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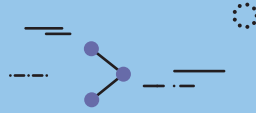
6 물리적 경험과 감각 중시

물성 매력(Physicality Appeal) 디지털 중심 시대 속에서 물리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선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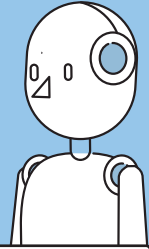
7 협업과 상호 성장

공진화 전략(Coevolution Strategy)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둠





2025 군산 트렌드



질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트렌드를 신조어로 알려줘

챗GPT 이러한 트렌드는 군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2025년 지역적 발전과 문화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신조어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1 군산형 로컬라이징 (Gunsan-Style Localizing)

산업과 역사를 바탕으로 특화된 로컬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경험을 제공

2 그린군산 (Green Gunsan)

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트렌드. 친환경적인 재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대. 청정 에너지와 생태 관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구상

3 군산형 노마드 라이프 (Gunsan-Nomad Life)

다양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장소가 많아,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지털 노마드'의 핫스팟으로 기대. 유연한 근무 방식과 지역 사회와의 융합을 통해 '군산형 노마드 라이프' 확산

4 스마트 항만도시 (Smart Port City)

군산항을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항만 도시로 발전. 물류와 관광, 교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구조로 변화

5 군산 푸드웨이브 (Gunsan Food Wave)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군산 푸드웨이브'라는 식문화 트렌드 선도. 특히, 로컬 푸드와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시켜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

6 디지털 문화재 (Digital Cultural Heritage)

역사적 장소와 문화재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험 제공

7 소셜 공유도시 (Social Sharing City)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예상. 공공시설이나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 활성화 및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 증대

8 세컨드홈 군산 (Second Home Gunsan)

서울과 수도권 지역민들에게 '세컨드홈'은 떠오르는 트렌드. 군산의 자연과 여유로운 생활 환경이 매력적으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주 가능성 기대

생활정보 톡톡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톡톡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Q 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또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6호 및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 다만, 취소 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영수증 등 관련
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정이 변경돼서 이미 계약했던 기간보다 더 길게
자동차를 빌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A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차 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
다. 해당 자동차 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대여 계약을
변경하여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
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국소
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톡톡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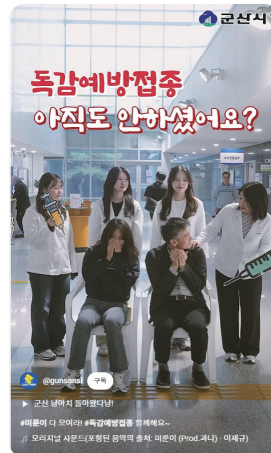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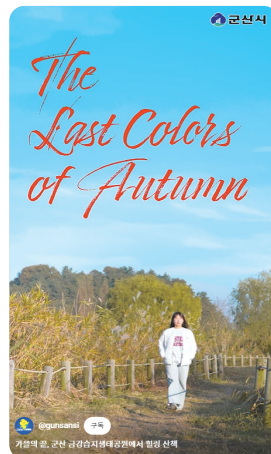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
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공무원트뷰 | 함께해요
#미룬이 다 모여!
#독감예방접종 함께해요~
#군산시 보건소



공무원트뷰 | 함께해요
#고향 사람에 몸 바치는
공무원의 패기
#군산고향사랑기부제



군산풍경 | 힐링해요
가을의 끝,
군산 금강습지
생태공원에서 힐링 산책
#군산노을명소



군산시 홍보영상
오늘 찜뽕 한그릇 어때요?
#군산찜뽕페스티벌

리포터 소식

새해맞이 소원맛집, 선유3구 기도등대

리포터 박영미

묵은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12월 즈음. 다소 경건한 마음으로 찾을 곳이 있습니다. 군산 선유3구에 자리한 기도 등대입니다. 두 손을 맞대고 기도하는 모양의 등대를 보는 순간, 마음속 소원이 주저리주저리 나오며 기도하게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처음 불을 밝힌 기도등대는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관광객들이 찾아와 꿈과 소원을 비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푸른 바다와 붉은 등대를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새해맞이 명소,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소, 기도등대에서 간절한 소원 하나씩 빌어봅시다.



백작이 되고 싶은가? - 젠틀맨스 가이드 뮤지컬 관람

어린이 리포터 양승현

지난 11월 30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으로 '젠틀맨스 가이드' 뮤지컬을 보기 위해 엄마·아빠와 함께 갔다. '젠틀맨스 가이드'는 로이 호니먼의 소설 <이스라엘 랭크: 범죄의 자서전>을 기반으로 한 코미디 뮤지컬로 김범 배우와 정상훈 배우가 출연하는 걸 보았다. 특히 정상훈 배우는 1인 9역을 맡아 연기했는데 어떻게 혼자서 나올 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연기도 잘하지만, 관객들에게 '군산'을 언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던 것 같다. 뮤지컬의 내용은 1909년 영국 런던에서 낮은 신분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던 '몬티'가 어느 날 자신이 귀한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이스퀴스' 가문 백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상천외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백작이 되기 위해 사람을 제거한다? 실제로 일어나면 큰일날 일이지만, 유쾌하게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연기로 볼 수 있어 TV로 보는 것보다 뮤지컬이 확실히 생동감이 있었다. 앞으로도 멀리 가지 않고 군산에서 이렇게 좋은 뮤지컬을 많이 보면 좋겠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군산에서 첫 해를 본다.

리포터 서정은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한다는 뜻인 선양동은 군산시 동쪽에 자리한 동네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해돋이공원은 선양동 고지대에 있었던 노후 불량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선양동 해돋이공원은 매년 1월1일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손쉽게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위치 해있는 공원으로 군산 시내가 한 눈으로 내려다보이는 전망으로 탁 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최적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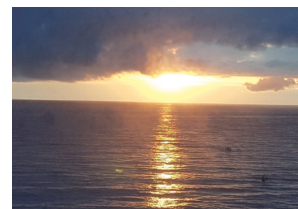


공원에서 보이는 군산시가지와 금강의 전망은 당연 일품이며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고 해 질 무렵 붉게 물든 노을과 함께 이어지는 야경은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의 시작을 기분 좋게 이 기운을 몰아서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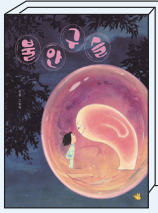
리포터 유수경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을사년 2025년이 다가오고 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는 '청사(靑蛇)의 해' 혹은 '청색 뱀띠의 해'라고도 부른다. 푸른색은 꿈, 희망, 성장, 생명력을, 뱀은 지혜와 변화, 재생을 상징한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길 바란다. 새해 첫날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 한 해 동안 가족들의 건강, 경제가 좋아져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국익도 올라가서 살아가기 더욱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우리 군산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학교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푸른 뱀처럼 꿈과 희망이 넘치고 지혜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책 속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유아



불안 구슬

한솔 | 노란돼지 | 2024

어린이들 걱정을 달래 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림책. “너는 걱정과 불안을 이겨 낼 힘을 가진 사람이야.”하고 용기를 건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

박현민 | 창비 | 2024

우리는 자연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전설 속 존재 ‘에티’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

초등학생



언제나 다정 죽집

우신영 | 비룡소 | 2024

“다정함이야말로 이 맛의 비결이니까요.” 낡고 오래된 부엌 친구들이 살아 움직이는 다정 죽집. 그곳에 찾아든 놀라운 기적과 다정한 비밀



해든분식

동지아 | 문학동네 | 2024

분식집 둘째 딸 강정인의 단짠단짠 상상초월 변신 판타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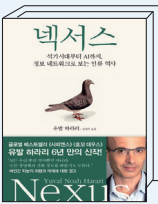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 해결책 | 2024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명하는 차인표 작가가 담담히 들려주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아주 특별했던 날들과 70년의 기다림

성인



넥서스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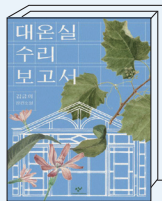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대온실 수리보고서

김금희 | 창비 | 2024

창경궁 대온실의 비밀을 둘러싼 장엄한 서사

“역사가 슬픈 건 죽은 이들 때문일 수도 있고, 늘 미완으로 남는 소망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2025년 겨울독서교실 운영

구분	운영기간 및 대상	운영내용
시립도서관	'25. 1.20.~1.24. 10:00~12:00 초등 2~4 (16명)	독서보드게임, 네컷동화, 감성인형 키링만들기, 캐릭터 역할놀이
금강도서관	'25. 1.13~1.17. 10:00~12:00 초등 2~4(16명)	어린이 경제 교실, 도서관 이용자 교육, 그림책 놀이, 영어, 미술, 경제 보드게임
늘푸른도서관	'25. 1.13~1.17. 09:30~11:30 초등 2~4(16명)	도서관 이용자 교육, 궁금해요 (사장님/과학자/아나운서/작사가/요리사)
설림도서관	'25. 1. 13~1.17. 10:00~12:00 초등 2~4(16명)	도서관 이용자 교육, 원예, 독서토론, 공예, 과학
산들도서관	'25. 1. 13~1.17. 10:00~12:00 초등 1~3(12명)	도서관 이용자 교육, 그림책놀이, 미술, 과학, 공예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겨울방학특강 운영

구분	운영기간	운영내용
시립도서관	'25. 2. 3.~2. 28. 유아, 초등, 성인(84명)	영어그림책, 동화요리, 창의력대탐험, 공예, 보드게임, 플라워아트
금강도서관	'25. 1. 14.~2. 13. 유아, 초등(50명)	스피치, 과학교실, 인물역사보드게임
늘푸른도서관	'25. 1. 15.~2. 24. 유아, 초등(50명)	과학교실, 동화요리, 조물조물그림책, 역사보드게임
설림도서관	'25. 1. 13.~2. 13. 유아, 초등(46명)	토탈공예, 책놀이, 동화요리, 과학실험
산들도서관	'25. 1. 6.~2. 6. 유아,초등, 성인(40명)	수학놀이, 동화요리, 뜨개공예, 그림책학교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과목당 1만원(1개월) / 재료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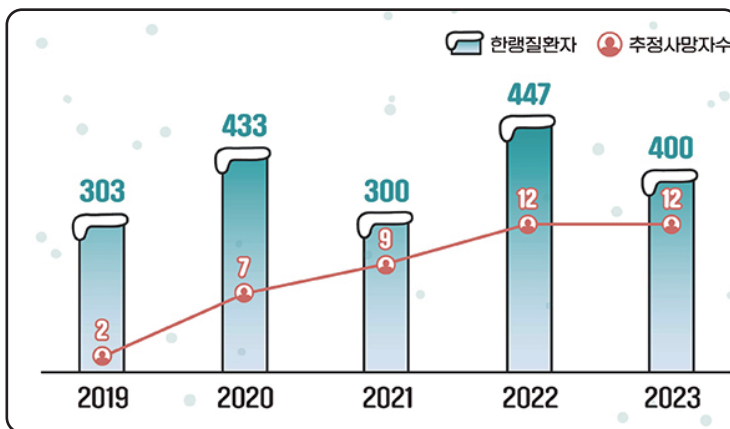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한랭질환은 무엇인가요?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연도별('19~ '23년)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위험군은?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 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동상 위험군은?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방한용품 (장갑,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한랭질환자 조치 요령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건강한 겨울나기,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함께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전

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지금 우리 동네는”

옥서면, 신청사 지역커뮤니티 허브역할 기대

새로운 군산 옥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2월 13일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옥서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2022년 6월 공사 착공 이후 1년 11개월의 공사 끝에 행정복지센터와 사통팔통문화복지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조성되었다. 신청사의 1층에는 민원실, 예비군중대본부, 마실쉼터(카페)가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위원회 회의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공간이 마련되었다.



수송동, 겨울철 안전 위해 제설도구함 설치

수송동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 상습 결빙 구간에 제설도구함을 설치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신속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설도구함은 제설 삽, 제설 낙가래, 빗자루, 염화칼슘 포대로 구성되었으며, 관내 30개소 주요 승강장, 사거리 등 시민 왕래가 잦은 장소에 안내판과 함께 비치됐다.



회현면, 어르신들의 새로운 쉼터, 방채 경로당 개소

회현면은 지난 12월 21일,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인 방채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방채 경로당은 연면적 67.59㎡의 지상 1층 규모로,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웠던 기존 경로당 부지에 새롭게 지어졌다. 새롭게 건립된 방채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복지 공간으로, 노인 여가활동, 식사 제공, 건강관리, 친목 도모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구암동, 천사들의 선행 '기부는 기쁨이에요!'

구암동 오션클래스 국공립 어린이집(원장 윤인순)은 지난 12월 5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바자회 수익금 50만 원을 기부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따뜻한 마음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생들은 나눔의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먼저 투명 페트병인지 일반 플라스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합니다.

생수, 음료용 무색 페트병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외 유색 플라스틱 용기 → 플라스틱 분리배출

Q. 왜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죠?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PET를 수입(연 2.2만 톤)하는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해 보이더라도 별도 분리배출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카페에서 주는 투명 플라스틱 컵인데요. 재활용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합니다.

계란 판, 과일 등을 담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워셔액, 세제 통, 간장, 식초, 식용유 용기도 완벽하게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생수와 음료병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기!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4단계 >

- 1 비운다
- 2 헹군다
- 3 분리한다(라벨 떼기)
- 4 찌그르트리고 뚜껑 달기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플레이크로 분쇄 후 섬유 원사로 만들어져 업사이클링 의류 등 재활용됩니다.

투명 페트병 → 플레이크 → 원료 폴리머 → 친환경 의류 → 원단 → 원사

분리배출 방법이 헛갈릴 땐 '내 손안에 분리배출' 앱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자원순환을 위해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꼭 지켜주세요.

나도 재활용품이 되고 싶어 ♻️

집에서 1분만에 배기 대형폐기를 간편 배출신청

전국 80만명이 검증한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배기'를 지금 사용해보세요.

직접버릴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를 배출 신청

- 1 배기 앱 다운로드
- 2 배기 등록 신청하고 간편 회원가입
- 3 폐기물 버릴 날짜/시간 선택
- 4 스티커 금액 결제
- 5 배기 예약번호 받기

혼자 들고 무겁거나 버리기 아까운 물품을 버리시나요?

내리드림: 무거운 대형폐기물은 검증된 배기 파트너가 대신 내려드려요. 당일 수거도 가능한 내리드림으로 무거운 대형폐기물도 손쉽게 버려주세요.

응고매입: 버리기 아까운 가전, 가구는 배기 파트너에게 중고로 판매해 보세요. 배기 파트너가 견적 책정부터 수거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투명페트병! 내용물 비우고, 라벨은 제거하고, 찌그르트리고, 투명비닐에 담은 후 매주 수요일 오후 배출 목요일날 수거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 라벨은 척! 제거하기

찌그르트리고 파~악 뚜껑 달기~ → 흰색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이야기는 군산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gunsanpr>)에서 더 많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의회에서 대표발의한 건의안·성명서를 소개합니다

이연화 의원 대표 발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감시접근 권한을 갖기 위해 ▲ 정부

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가 최소한의 감시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정비 시 관련 시군구에도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자료를 관련 시군구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



김영일 의원은 전북자치도지사의 공약대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환경을 조성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이 지금 당장 관할권에 대한 다툼을 멈추고 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새만금 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앞서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소통과 화합의 방안을 제시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선결적으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에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할 것,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제공기관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 ▲ 정부는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김경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은 농식품바우처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 정부는 먹거리 취약 가구가 본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예산을 증액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에 따라 지원품목 한정, 특정품목 수요 집중,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국회는 농식품바우처가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일궈 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군산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과 김경구·김경식·김영자·서동완 의원은 군산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에서 열린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옥서면 하제마을 팽나무는 수령이 600년 가까운 보호수로 시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으로 일궈 낸 자연유산 문화재 지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미군 공여지에 홀로 남겨질 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등과 뜻을 함께하여 팽나무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또한, 2018년부터 8,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팽나무 지키기 서명운동을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2023년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제마을 팽나무가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고 식물학적·경관적 가치 및 역사적·민족학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함께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소리에 귀 기울여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주요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국가예산 1조원대 10년 연속 달성

군산시는 2025년도 국가 예산 1조 2,041억 원을 확보하며, 10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대 확보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현정사상 최초로 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결과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가 예산은 신규사업 17건에 391억 원, 계속사업 232건 1조 1,650억 원, 총 249건 1조 2,041억 원 규모이다. 또한 군산시는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 기획예산과 454-2306



새로운 시작, 희망의 군산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군산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5개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일자리 민·관·산·학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산시 일자리 거버넌스는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 지역 관계기관, 단체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이다. 이번 거버넌스 출범을 계기로 시는 관계기관과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 기관·단체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경제과 454-4352



새만금 지역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즐거운 해양관광의 메카로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를 육성하여 신규 관광수요 창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해 상품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협약기관들과 함께 공동 해양관광 홍보마케팅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과 454-3332



군산시민문화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군산시는 지난 12월 6일 군산시민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하며,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회관을 공개했다. 이 회관은 건축가 김중업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했으나, 2013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군산시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하여 공간 실험과 사회적 실험을 거쳐 재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민관협력형 운영 방식을 도입해 창의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도시재생과 454-4196

INFO BOX

2025 을사년 신년대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년대화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자	읍면동		
	10:00	14:00	16:00
1. 7.(화)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흥남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1. 8.(수)		월명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중앙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
1. 9.(목)	경암동(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강당)	조촌동(군산산림조합 2층)	구암동(금강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
1.10.(금)	개정동(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대야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1.13.(월)		서수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나포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
1.14.(화)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1.20.(월)		성산면(오성문화복지센터 1층 대강당)	임피면(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1.21.(화)	삼학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	신평동(자원봉사센터 2층 대강당)	해신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1.22.(수)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	소룡동(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	미성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1.23.(목)	옥도면(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옥구읍(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옥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강당)
1.24.(금)	옥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회현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	
2. 3.(월)		개정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 454-2245

군산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야간창구 운영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 ~ 21:00

장 소 열린민원과 1층 민원실 여권 창구

내 용 여권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 열린민원과 454-2542

동파 비상대응 종합상황반 운영

운영기간 2024. 12월 ~ 2025. 2월

운 영 반 수도과 전 직원 및 현장반

운영내용 계량기 사전점검, 동파신고 접수 및 피해
상황 신속 조치 등

☎ 수도과 454-4523

2026년 ~ 2028년 토양개량제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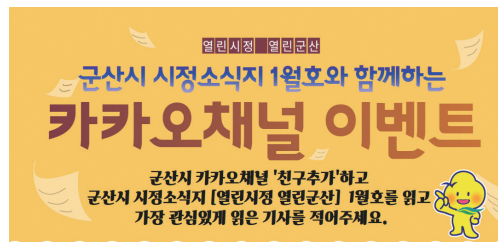
기 간 2025. 2. 20.(목)까지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인, 신청농지)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농업정책과 454-2843



열린시정 | 열린군산

군산시 시정소식지 1월호와 함께하는
카카오채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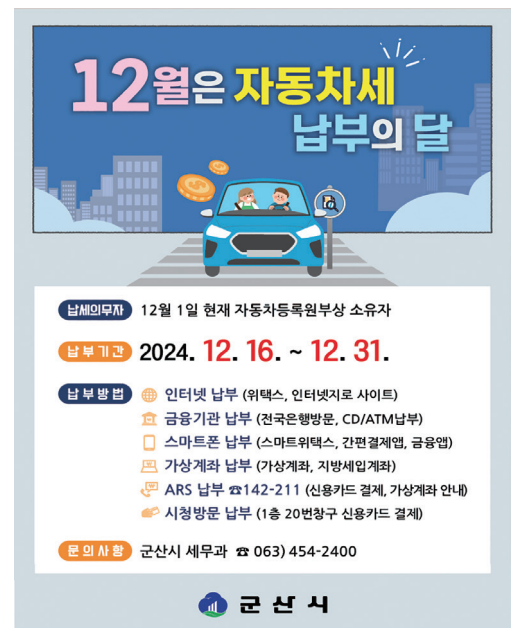
군산시 카카오페널 '친구추가'하고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1월호를 읽고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를 적어주세요.

- 이벤트기간** 2024.12.24.(화) ~ 12.30.(월) 7일간
- 참여방법**
1. 군산시 카카오페널 친구추가 (기존 친구 참여 가능)
 2.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1월호를 읽고
 3. 구글폼에 이벤트 신청 등록하기
 -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 친구추가 인종
 - 관심있게 읽은 기사 제목 입력
- 이벤트경품** 피자 교환권 100명(2만원 상당)
* 100명 이상 시 무작위 추첨
- 당첨자발표** 2025년 1월 8일(수)



카카오페널 이벤트는 2025년 매 분기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군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간 2024. 12. 16. ~ 12. 31.

납부방법

-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 ☎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방문, CD/ATM납부)
-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앱)
- ☎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 ARS 납부 ☎142-211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안내)
- ☎ 시청방문 납부 (1층 20번창구 신용카드 결제)

문의사항 군산시 세무과 ☎ 063) 454-2400

☎ 군산시

| 시 | 문 화 빈

울음

적들의 총구를 뒤로 한 채 바지를 내렸다
어두운 설원 위로 지린내 나는 김이 모락모락
이 와중에
이성이 마비된 기차가 떠날까봐 두려운,
그 틈새로 특별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말들이
날벌레처럼 모여들었다

이것들 봐, 살고 싶지

귀와 눈이 몽개진 고요가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도와줘

나라는 나를 훔친 도둑이었고
그 단어가 불시에 나를 붙잡아갔다

하늘이 설원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공포,
폭력의 크레센도*가 그림카드처럼 짝 펼쳐졌다

*점점세계



문 화 빈

2020년 미네르바 시인 등단
시집 『파이(π)3.141592.....』
한국문협 회원, 전북문협 회원
군산문협 회원, 미네르바 문학회 회원



편 성 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 회원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군산문인협회 부회장
전주교구가톨릭문우회 회장
군산나루문학회 회장
수필집 발간 『꽃 지는 오후』
『나는 늘 가고 있었지』 『그 길 아래 바다』

| 수필 | 편 성 희

시간 낙하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예전에 보았던 삶의 고단한 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겐가 또 그대로 힘들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은 항상 그늘에 앉은 무거운 그림자를 쉽게 지우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사라진 나운동 근처 중국집에서 양파를 까고 있는 소년을 본 적이 있다. 눈물을 훔치며 몇 포대의 망을 옆에 두고 힘들게 양파를 다듬고 있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삶의 어느 구석에선가는 똑같은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서이다.

저녁 어스름해지는 시간에 급하게 은행에 들를 일이 있었다. 해가 지고 나니 낮보다 밝아지는 골목길에는 이집 저집 불빛이 뜨고 왠지 낯설어졌다. 저녁이면 차들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내 앞으로 몇 대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정체의 순간, 저 앞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힘들게 조금씩 조금씩 사이를 비집으며 내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미 어둠은 내려와 있고 상가의 불빛은 그만큼 더 밝았다. 헬멧을 눌러써 얼굴에는 질게 그늘이 내려앉은 채 킁킁거리며 앞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게 보였다. 나는 앞으로 나갈 것도 잊고 그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빨리 내 옆을 지나가 오늘 하루의 목표달성을 바라는 바람과 함께 나에게도 힘든 그런 날이 있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운전대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다.

그의 발등에 앉은 절박함을 알기에 조용히 길을 트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가 헬멧을 잠깐 들어 올리며 꾸벅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젊은 청년이었을까, 어린 소년이었을까, 분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잠깐 멈춰서 수줍은 듯 감사의 표시를 하고 다시 오토바이 바퀴를 천천히 움직이며 내 옆을 지나갔다. 뒷모습을 남기지 않았지만 나는 또 하나 덧대지는 세상의 무거운 어둠이 저만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왜 힘든 것들은 시간을 따라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겐가 달라붙어 여전히 고통을 주는 것일까, 세상은 아름다움을 꿈꾸면서도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예전에 보았던 아픔을 지금도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좋고 실한 것은 누가 가져가고 그것을 편하게 누리는 사람의 노력과 은행 골목을 여전히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노동은 어느 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잊히지 않는 소년과 오늘의 청년이 다시 떠올라 한동안 먹먹한 마음이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신은 어디로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을 찾으면서 지금의 현실을 깨끗하게 이겨내고 있다.

어두운 밤길에서 빛은 더 밝다. 헬멧 아래 흔들렸던 청년의 그늘진 그림자가 오랜 슬픔이 아니기를, 멀어지며 놓친 삶의 고독한 틈새가 그만 여기에서 메꾸어지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나마 힘을 보태어 본다.

매운 눈물을 씻은 어린 소년에게 양파를 까던 시절이 약이 되었을 것으로 여전히 응원을 보내고 지금 힘차게 페달을 밟아 세상을 헤쳐 가는 청년은 이 무거운 시간의 낙하를 막아내면서 어둠이든 환한 대낮이든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를 같이 꿈꾸어 본다.



01 2025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일시 2025. 1. 1.(수) 07:00
장소 선양동 해돋이 공원
내용 덕담, 새해인사, 먹거림 나눔, 난타 등 공연
주관사 군산발전포럼
 ☎ 관광진흥과 454-3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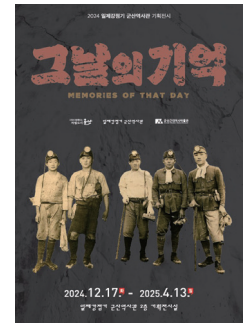
02 금강미래체험관 업사이클링 펩아트 기획전시

기간 2025. 2. 28까지
장소 금강미래체험관 지하로비
내용 지구를 위한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쓰는 지구의 책'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금강미래체험관 454-5682



03 박물관 기획전시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간 2024. 12. 10. ~ 2025. 3. 30.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내용 지역사회 교육과 제향을 담당하던 전통 교육기관 조영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박물관관리과 454-7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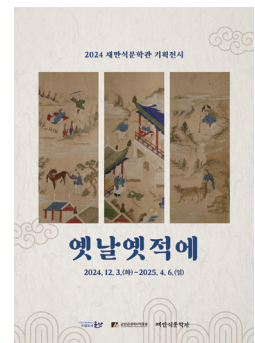
04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기획전 「그날의 기억」

기간 2024. 12. 17. ~ 2025. 4. 14.
장소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내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전시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454-5946



05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순회전 「나는 한국광복군입니다」

기간 2024. 12. 20. ~ 2025. 4. 20.
장소 3.1운동100주년기념관 1층 전시관
내용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
입장료 성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 3.1운동 100주년기념관 454-5940



06 채만식문학관 「옛날 옛적에」

기간 2024. 12. 3. ~ 2025. 4. 6.
장소 채만식문학관 2층 전시관
내용 재미와 교훈이 담긴 군산 전승 설화
입장료 성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 채만식문학관 454-7885

2025년에도 군산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해 주세요



군산시에서 준비한 답례품을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등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박 대 | 젓갈세트 | 생선구이세트 | 뭇잎어신동진 | 옥토진미골드쌀 | 흰찰쌀보리 | 울외장아찌 | 양념장아찌2종세트 | 쌍화차 |
| | | | | | | | | |
| 멸치세트 | 간장게장 | 간장게장·전복·대하장 | 통곡물꾸러미 | 귀리선물세트 | 농산품꾸러미 | 커피디저트세트 | 누룽지과자세트 | 군산사랑상품권 |
| | | | | | | | | |
| 밀키트게장 | 김부각세트 | 신동진큰들쌀 | 단팥빵 | 군산뽕뽕라면세트 | 장아찌세트 | 맥주호모 샴푸바 | 숙박할인권 | |

공보협력과 고향사랑기부계 063-454-2612